

## 러시아 제대로 보기

류한수\*

[서평] 기 메탕(2022),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 정치와 서구의 위선』, 가을의 아침, 493쪽

알렉산드르 푸시킨, 미하일 레르몬토프와 더불어 19세기 러시아의 3대 시인으로 손꼽히는 표도르 튜체프(1803~1873년)는 일찍이 1866년에 이렇게 읊었다.

러시아는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 보통 잣대로는 재지 못한다.

러시아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러시아는 믿을 수 있을 뿐이다.

75년이 흐른 1939년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러시아를 “불가사의 속의 신비에 싸인 수수께끼”라고 일컬었다. 이렇듯, 러시아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느낌이 존재했다. 글쓴이가 몸소 겪은 바를 보태 본다. 글쓴이는 영국 유학생 시절에 학위 논문에 필요한 1차사료를 모으고자 러시아로 가려고 짐을 꾸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영국인 택시 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기사가 나의 직업을 묻길래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알려 주었더니, 그가 대뜸 한다는 말이 “A mysterious country!”(신비로운 나라!)였다. 러시아에 도착해서 러시아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그 친구들도 손뼉을 치면서 “맞아! 정말로 그렇지!”라고 말하며 껄껄 웃는 것이었다.

---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어떤 것이 신비롭다는 것은 알기 힘들다는 것이며, 알기 힘들면 대개 호감보다는 편견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다른 나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마련인데, 러시아는 유럽에서 도무지 종잡을 길 없어 보이는 만큼 두려움과 미움을 사기 일쑤인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다. 가뜩이나 미움 받던 그 러시아가 올해 겨울의 끝자락에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으니, 러시아에 고운 눈길을 보내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더더욱 힘들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딱 한 달 앞선 2022년 1월 25일에 ‘루소포비아: 러시아 혐오의 국제 정치와 서구의 위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책이 있다. 러시아가 버젓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러시아를 변호하는 이 책이 시의를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전쟁이 나서 더 시의성을 지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기 메탕(Guy Mettan)은 스위스의 저널리스트이다. 프랑스어가 모국어인 그는 스위스의 여러 신문에 정기 칼럼을 썼으며,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일간지 『제네바 트리뷴』(*Tribune de Genève*)의 대표 겸 편집장을 지냈다. 사회정치 분야의 활동가로도 활동하는 그는 민족 문제와 국제 관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펴냈다. 러시아와 직접 관련된 기 메탕의 활동으로는 2005년부터 스위스-러시아(독립국가연합) 상공회의소 대표를 들 수 있다. 사생활의 영역이겠지만, 그는 러시아 소녀를 입양해서 키웠다. 율킨이는 러시아에서 각각 러시아의 역사와 언어를 전공한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강성희 박사이다. 두 사람 다 박사학위를 러시아에서 취득한 러시아 전문가이다. 율킨이들은 원본인 프랑스어판<sup>1</sup>이 아니라 러시아어판<sup>2</sup>을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고 번역 작업에서

1 Guy Mettan (2015), *Russie-Occident, Une guerre de mille ans: La russophobie de Charlemagne la crise ukrainienne*, Éditions des Syrtes.

2 Ги Меттан (2016), *Запад-Россия: Тысячелетняя Война. История русофобии от Карла Великого до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аулсен.

영어판<sup>3</sup>을 참고했다.

『루소포비아』의 여러 판본의 제목은 책 본문에 담긴 내용을 한눈에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2015년 프랑스어판의 제목은 ‘러시아와 서방: 천 년의 전쟁, 카롤루스 마그누스부터 우크라이나 위기까지의 루소포비아’이다. 한편, 러시아어판은 프랑스어판과 제목이 거의 같은데, 책 겉표지에 “왜 우리는 러시아 미워하기를 그토록 좋아하는가?”라는 선전 문구가 박혀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문구에 나오는 “우리”는, 물론,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일 것이다. 또한 옮긴이들이 번역에 참고한 영어판의 제목은 ‘루소포비아 만들어내기: 그리스도교의 대분열부터 반(反)푸틴 히스테리’로 프랑스어판 및 러시아판의 제목과 살짝 다르다. 요컨대, 『루소포비아』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의 감정이 언제 왜 형성되어 어떻게 퍼져 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옮긴이들은 이 책의 핵심 개념인 루소포비아(russophobia)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루소포비아란 ‘러시아 혐오증 또는 공포증’으로 … 러시아라는 국가와 러시아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리킨다. 이는 러시아라는 국가 체제와 대외정책의 어떤 특성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그것들이 러시아인들의 열등한 민족성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또 다른 버전의 ‘오리엔탈리즘’이다. 루소포비아는 서구가 러시아라는 강력한 상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묶어 놓고 그 행동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프로파간다의 기본틀로 이용된다. 러시아의 평판을 깎아 내림으로써 서구인들이 얻게 되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루소포비아는, 그 실제적 근거의 존재 유무나 타당성과 상관없이, 미국과 서유럽

3 Guy Mettan (2017), *Creating Russophobia: From the Great Religious Schism to Anti-Putin Hysteria*, Clarity Press, Inc.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외전략의 메뉴로 자주 등장한다.(9-10쪽)

요컨대, 러시아에 품은 두려움과 미움에는 근거와 실체가 없는데도 미국과 서구는 그 두려움과 미움에서 얻는 이득이 손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선을 떨쳐 내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인 기 메탕의 핵심 주장이다.

제1장 ‘루소포비아, 또는 다른 민족의 눈으로 본 러시아’, 제2장 ‘파블로프의 개 또는 러시아에 대한 조건반사’, 제3장 ‘2014년 우크라이나의 진실에 눈을 감은 서방 언론’, 이렇게 3개 장으로 이루어진 제1부 ‘편견의 힘’에서 기 메탕은 러시아가, 특히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여론에서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다 못해 심지어는 악마 같은 존재로 묘사되는 현상의 세세한 실례를 낱알이 깊으면서도 넓은 사회적·정치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 실례들의 허구성을 드러내려고 애쓴다. 저자가 위낙은 저널리스트인지라 표현과 문장에 박진감이 차고 넘치는 이 제1부를 읽다 보면, 지금까지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 느껴 왔던 밍살스러움이 다소간에 애뜻함으로 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기 메탕의 말마따나, “러시아 제국이 캐비어를 팔거나, 상냥하게 굴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푸틴 또한 국제 사회에서 다른 이의 모범이 되는 점잖은 시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체현으로 간주되는 푸틴은 코언 형제의 2007년작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나오는 살인청부업자 안톤 시거나 강윤성 감독의 2017년작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첸 같은 악당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는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이 된 뒤로 죽 세계에서, 특히 서방에서는 비난과 매도의 대상인 악당이다 못해 악마처럼 취급되었다.

기 메탕이, 모르긴 몰라도, 푸틴과 더불어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를 악마화하는 루소포비아의 확산자로 여길 만한 사람이 동유럽 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인 미국의 예일 대학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일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 체제가 겪고 있는 온갖 이상 현상의 배후에 푸틴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책<sup>4</sup>과 『루소포비아』 제1부를 건취 가면서 읽는다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까지 달리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2013~2014년 겨울을 뒤흔든 “유로마이단” 봉기에 관한 티모시 스나이더와 기 메탕의 설명이 특히 그렇다.

루소포비아 현상이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프로파간다의 결과라는 기 메탕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루소포비아> 출간 일 이후인 탓에 그가 다루지 못한 추가 사례 두 건을 글쓴이가 보태 보고자 한다. 안드레이 치카틸로(Andrei Chikatilo, 1936~1994년) 사건과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미국과 서방의 매체가 소비하는 방식에 관한 사례이다.

소비에트 연방이 침체 일로를 치닫던 1978년부터 해체 직전인 1990년까지 13년 사이에 유럽 러시아 남쪽의 로스토프 시 일대에서 쉰 명 넘는 시민을 시차를 두고 피엄피엄 죽인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연쇄 살인마가 실제로 있었다. “로스토프의 백경”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치카틸로의 으스스한 행각과 체포 과정은 미국의 문필가 로버트 컬런(Robert Cullen)이 1993년에 쓴 스릴러 소설 『살인범 부서: 러시아 역사상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빅토르 부라코프 형사』<sup>5</sup>로 다루어졌고, 미국의 저명 극작가 크리스 제롤모(Chris Gerolmo)는 이 소설을 각색해서 1995년에 <시티즌 X>(Citizen X)라는 영화를 내놓았다.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희대의 연쇄 살인이 일어나자 소련의 경찰과 형사들은 범인을 붙잡으려고 애썼으나 사회

4 Timothy Snyder (2018), *The Road to Unfreedom: Russia, Europe, America*, Tim Duggan Books,의 한국어판 티모시 스나이더(2019), 유강은 옮김,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도둑 정치, 거짓 위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키. 스나이더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등이 푸틴의 음모와 공작 탓이라고 주장한다.

5 Robert Cullen (1993), *The Killer Department: Detective Viktor Burakov's Eight-Year Hunt for the Most Savage Serial Killer in Russian History*, Pantheon.

주의 이념에 따라 이상 사회를 구현한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연쇄 살인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고위 당국의 의도적인 방해 탓에 번번이 허탕을 치다가 소련이 붕괴한 뒤에야 제대로 수사를 해서 치카틸로를 체포할 수 있었다. … 이 치카틸로 사건은 영국에서도 각색되어 톰 로브 스미스(Tom Rob Smith)라는 작가가 2008년에 스릴러 소설 『차일드 44』<sup>6</sup>의 소재로 활용했고, 미국에서처럼 영화로도 제작되어 2015년에 같은 제목의 영화가 나왔다. 줄거리는 넓은 틀에서는 <살인범 부서>나 <시티즌 X>와 그리 다르지 않지만, 1930년대 초엽의 대기근(홀로도모르) 시기의 무시무시한 식인(食人) 행위와 이후의 숨막히는 대숙청이 보태져서 훨씬 더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러시아는 끔찍한 지옥도(地獄圖)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소비에트 사회는 연쇄살인이 일어날 리 없는 지상낙원이라는 허상을 지켜 내려고 고위 당국이 치카틸로 같은 연쇄살인범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설정이 실상과 맞을까? 치카틸로가 1984년에 소련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몇 달 뒤에 풀려난 일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는 그 뒤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그 로스토프의 백정을 붙잡으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헛일이었다. 치카틸로가 체포되지 않은 까닭은 고위 당국이 수사를 방해해서가 아니라 그가 1백만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나오는 특이 체질의 소유자여서였다. 치카틸로의 신체 혈액형과 체액(정액)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하다 연행된 치카틸로의 혈액형을 희생자들의 몸에서 나온 용의자의 혈액형을 대조했지만 그 둘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를 용의선상에서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에서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13년 동안 설쳐댈 수 있었던 까닭은 이념의 허상에 매달리는 위정자들의 경직성이 아니었던 셈이다.<sup>7</sup>

6 Tom Rob Smith (2008), *Child 44*, Grand Central Publishing.

7 엄격히 따진다면, 소련이 곧 러시아는 아니다. 그러나 냉전 시대에 서방에서 러시아와 소련이 사실상 동일시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소련을 보는 시각은 곧 러시아를 보는 시

또한, 2019년에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서 내놓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5부작 텔레비전 드라마 <체르노빌>도 허구의 설정이 러시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사례로 거론될 수 있다.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소재로 삼은 이 드라마는 그 재앙의 발생 원인을 러시아/소련의 사회주의 이념과 비합리성에서 찾는다. 물론 이런 요인이 작용은 했겠지만, 과연 근본 원인일지는 의문이다. 체르노빌의 재앙이 소련 사회주의 특유의 비합리성 탓이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체르노빌 사고에 버금갈 재앙의 직전 단계인 노심 용융 사고가 일어났고, 2011년에 일본에서는 체르노빌과 동급의 재앙으로 분류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터졌다. 미국과 일본이 사회주의 국가였던가? 체르노빌의 재앙은 테크놀로지를 맹신하는 현대 사회의 관료주의 탓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소설이나 영화 등 허구에서 러시아/소련이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나라로 설정된 사례가 숏하게 많고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은 ‘러시아가 어련하겠어...’라는 편견의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그 편견이 혐오/공포를 낳고 또 그 혐오/공포가 편견을 굳히는 악순환이 버젓이 무한 반복하면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의 이미지는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못하고 있다. <루소포비아> 제1부의 끝부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기 메탕의 주장은 여운을 남긴다.

우리는 같은 조건반사를 본다. 러시아를 믿지 않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고 특정한 메커니즘과 그것들을 강화하는 요인이 있다. 이것은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고, 끊임없이 유지되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언론인들도 본인이

---

각이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 행동의 스테레오타입이 행해진다. 전체적으로 루소포비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고 견고해져서 유럽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143-144쪽)

『루소포비아』의 제2부 ‘루소포비아의 간략한 역사’에서 기 메탕은 러시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서방 세계의 감정이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무려 천 년의 역사를 가진 현상임을 드러내려고 시도한다. 미국과 서방 세계의 러시아 관을 추적하고 분석한 연구서는 『루소포비아』 이전에도 여럿 있었다. 예를 들면, 근대 초기 유럽의 러시아 관을 다루는 Marshall T. Poe, *A People Born to Slavery: Russia in Early Modern European Ethnography 1476-1748* (Cornell University, 2000), 20세기 전반기에 독일인이 상상하는 러시아를 해설하는 James Casteel, *Russia in the German Global Imaginary: Imperial Visions and Utopian Desires, 1905-1941*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16), 19세기 말엽 이래 러시아를 교화하려는 사명감에 불타던 미국의 러시아 관을 분석하는 David Foglesong, *The American Mission and the Evil Empire: The Crusade for a Free Russia since 18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가 그러하다. 이처럼 뛰어난 학술서에 견줘서 기 메탕의 『루소포비아』가 지니는 강점은 어느 한 시대와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중세 초부터 최근까지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품어온 오해와 편견의 기원, 그리고 그 오해와 편견의 넓이와 깊이가 커지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추적한다는 데 있다.

제4장 ‘샤를마뉴 시대부터 진행된 종교 전쟁’, 제5장 ‘프랑스의 루소포비아와 아시아적 전제주의라는 신화’, 제6장 ‘영국의 루소포비아, 제국에 대한 강박관념’, 제7장 ‘독일의 루소포비아: 레벤스raum의 이데올로기에서 국가 기억의 부정에 이르기까지’, 제8장 ‘미국의 루소포비아 또는 자유 독재’, 이렇게 다섯 개 장으로 이루어진 제2부 ‘루소포비아의 간략한 역사’에서 기 메탕은 유럽의 중세 초에 프랑크 왕국이, 근대 초에 프랑스가, 그리고 영국이, 현대에 독일이, 20세기 후반에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



화하고자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짚어 나간다.

기 메탕은 서방 세계의 루소포비아가 시대마다 국가마다 다 달랐으면 서도 인종주의적 편견이 작용하면서 놀라울 만큼의 일관성을 지니고 면면히 전달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드 퀴스틴(de Custine) 백작과 20세기 중후엽 미국의 냉전(冷戰)의 전사 사이의 연속성을 일례로 들 수 있다. 1839년에 러시아 제국을 여행했던 드 퀴스틴은 1843년에 펴낸 여행기 『1839년의 러시아』(*La Russie en 1839*)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억압받은 사람들의 영혼에서만 태어나고 민족 전체의 불행을 먹고 자라는, 무례하고 과도한 야망이 러시아 민족의 가슴에서 끓어오른다. 이 민족은 본질적으로 공격적이다. 그들은 굴욕적인 상황에서 다른 민족에게 지배력을 확대하길 희망한다. … 공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의 형태로 나타나는 불경스런 희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예는 무릎을 꿇고 세계 지배를 꿈꾼다.

러시아의 본질적 속성을 호전성과 공격성, 그리고 팽창주의로 단정하는 이 같은 묘사가 담긴 드 퀴스틴의 저서는 러시아에 공포/혐오를 느끼는 이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원한 근거이자 생생한 예증의 보물창고 노릇을 했다. 당대에 프랑스와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드 퀴스틴의 러시아 여행기는 미국에서도 출간되었고 냉전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후 1987년 재출판본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다음과 같은 초록을 썼다. “러시아의 특징과 러시아 정치 시스템에 존재하는 비잔티움 성향과 관련하여 드 퀴스틴의 통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한 소비에트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브레진스키의 언사에 나오는 비잔티움 성향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15세기까지 존속한 동로마 제국의 또다른 명칭인, 사실은 멸칭(蔑稱)인 비잔티움(Byzantium) 제국이라는 고유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 byzantine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권모술수를 쓰는, 음모의, 복잡 미묘한, 미로처럼 뒤얽힌, 엉클어진”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동로마 제국은 러시아 문화의 모태 가운데 하나였다. 동로마 제국을 보는 중세 유럽 서방인의 편견이 러시아를 보는 근현대 서방 세계의 편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 메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샤를마뉴<sup>8</sup> 시대 유럽과 20세기 초 유럽은 자신의 출현을 위한 유리한 배경으로서 동방이 필요했던 것이다. 똑같은 의미로 2000년대 유럽은 자신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하다. 과거 비잔티움 제국이 수행했던 역할은 이제 러시아에게 넘겨진다.(193쪽)

민원기자가 추적 기사를 쓰듯이, 루소포비아의 기원 및 연원과 확대강화 과정을 뒤쫓으면서 서방 여론의 위선을 폭로하는 기 메탕은 러시아를 서방 세계가 스스로를 보는 일종의 일그러진 거울로 여기는 듯하다. 이 같은 시각은 다음과 같은 그의 서술에서 엿보인다.

러시아의 타자성(Russian otherness)에 대한 이런 부정적 담론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서구의 정체성이 그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분열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은 자신의 통합성을 성취하기 위해 러시아와 같은 적을 필요로 한다. 마치 백설공주 이야기의 사악한 계모처럼 서구는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어 마법의 거울에게 묻고 또 묻는다.(26쪽)

덧붙여 기 메탕은 이렇게 주장한다.

체계화하고, 질서화하고, 인간 사회의 위계를 확립하려는 강박적 요구와

8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프랑스어 표현.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려는 열망은 서구의 전형적인 공포, 즉 경기에서 뒤쳐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속적으로 속도에 대해 걱정하며 뒤따라오는 자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만 하는 두려움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할 뿐이다. 계몽주의 시대부터 서방 사회는 자신들이 진보와 문명의 전위에 서있고, 자신들의 가치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우월감과 패권을 향한 열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이에 이렇게 다르게 존재하니, 이상적인 범례가 된 것이다.(245쪽)

『루소포비아』는 “유로마이단” 시위와 러시아의 크림(크림) 반도 점령/합병 직후인 2015년에 세상에 나왔다. 그로부터 일곱 해가 지난 올해 2022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서방 세계에서는 러시아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솟구쳤고 지금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방 세계의 언론은, 늘 그랬듯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국제 악당으로, 더 나아가 악마처럼 그려 내고 있다. 그 빌미를 준 이는 어쨌든 푸틴 아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기 메탕이 2022년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어떻게 평가할지 자못 궁금하다. 뉘우치며 입장을 철회할까? 아니면 루소포비아에 관한 자기의 확신을 더 굳힐까? 그가 『루소포비아』의 후속작을 준비할 듯한 예감이 든다.

한편으로, 기 메탕은 루소포비아가 “항상 북반구의 가톨릭 및 개신교 지역과 연계된 현상이었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남아메리카는 루소포비아를 겪은 적이 없다”고 단언하고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경우, 러시아와 국경 분쟁이 있었고 전쟁이 발생한 적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반러 분위기가 없다”고 덧붙였다.(29쪽) 대한민국은 어떨까? 기 메탕의 말대로, 한국에는 루소포비아가 없을까? 러시아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의 정도에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에 못지않다고 보일 때가 많다. 기 메탕이 특이하게 여길지 모를 이 현상을 한국전쟁과 냉전 시대의 역

사적 경험 탓에 뿌리를 내린 반(反)공산주의 감정으로 설명하려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에는 러시아를 소비에트 연방과 혼동하는 기초적 오류가 있다.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는 경우가 다르다. 오늘날 러시아는 철저한 반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기 메탕의 시도를 연장하고 특화해서 한국 사회에 루소포비아가 언제 왜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루소포비아가 어떻게 확대강화되고 유지되는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매우 흥미로운 작업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한쪽 민낯이 드러날 듯도 하다.<sup>9</sup>

## 참고문헌

- 김희교(2022), 『짱깨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보리.
- 스나이더, 티모시(2019), 유강은 역,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도둑 정치, 거짓 위기, 권위주의는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부키.
- Cullen, Robert (1993), *The Killer Department: Detective Viktor Burakov's Eight-Year Hunt for the Most Savage Serial Killer in Russian History*, Pantheon.
- Mettan, Guy (2015), *Russie-Occident, Une guerre de mille ans: La russophobie de Charlemagne la crise ukrainienne*,ditions des Syrtes.
- Mettan, Guy (2017), *Creating Russophobia: From the Great Religious Schism to Anti-Putin Hysteria*, Clarity Press, Inc.
- Smith, Tom Rob (2008), *Child 44*, Grand Central Publishing.
- Меттан, Ги (2016), *Запад-Россия: Тысячелетняя Война. История русофобии от Карла Великого до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аулсен.

9 최근예, 기 메탕의 『루소포비아』와 비슷하게, 한국의 중국 혐오/공포 현상의 사회적 맥락을 추적하고 분석한 저서가 나왔다. 김희교(2022), 『짱깨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보리.